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Women's Experiences of Abortion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강명선**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Master : Kang, Myeong-Sun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omen's experiences of abortion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t considers their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and how their marital relationship is affecte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0 women aged 30-50 who had an abortio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data collection. A major finding of the study is that women who have had an abortion tend to experience severance of their emotional relationships. Specifically, they confessed their cognitive error about controllability, expressed their anxiety about recognized reality, and suffered from the unexpected results of having an abortion.

▲주요어(Key Words) : 낙태(abortion),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hip)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저출산과 더불어 생명존중의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세계최저의 출산율 1.08을 기록하고 현재 2010년 출산율 1.21로 저출산국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해 태어나는 출생아가 44만 5천명(통계청, 2010)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통계로 나타난 낙태건수는 34만 건이지만, 추정된 실제 낙태건수는 100만에서 150만 명으로 최소 출생수의 3~4배에 이르게 된다. 특히 2009년 20~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26%로 '91년

54%, 2006년 3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로 하향추세이나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1991년의 2명중 1명에서 2009년 4명중 1명이라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낙태에 대한 관점은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으로 생명을 회생시키는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와 여성이 지니는 자녀의 출생에 대한 자유가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찬반논의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러나 생명권과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선택권과 절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체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여성의 권리 또한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낙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언급하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강명선 (E-mail : kms0823@hanmail.net)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기를 회피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보다 대안적인 사회적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개인의 비밀스러운 선택으로 덮여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연구는 낙태죄 및 의료행위 대한 법적고찰의 연구(김나경, 2007; 권오봉·윤석찬, 2010; Bernd Schünemann, 1991)와 낙태를 모성건강 측면에서 본 연구(김영택, 2008; 황나미, 2007)와 더불어 여성계의 재 생산력과 선택권에 관한 연구(박숙자, 2001; 양현아, 2005)등 주로 선택권과 생명권으로 나뉘지는 법을 고찰한 양적연구가 대부분이고, 낙태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낙태경험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는 희박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의 낙태현상과 낙태가 개인이 선택이라는 사적인 일로만 여겨질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태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명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낙태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이 공존하는 낙태현상에 대해 낙태를 경험한 여성개인과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맥락에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낙태에 관한 현행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 인구의 양적억제정책이 시작되고 인공임신중절은 피임방법과 함께 인구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보편화 되었다. 이는 인구조절 외에 남아출산과 터울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폭넓게 수용되었고 1953년 형법에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1973년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규정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보면 형법상 용어인 낙태는 '자연의 분만기에 앞서서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의 특성상 위반하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상의 용어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허용범위가 매우 넓다(배종대,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낙태란, 일반사회의 용례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정의하고, 의사가 그 시술 주체이지만 여성의 '낙태행위'를 의미하며 여성의 낙태결과와 낙태시술을 치러내는 행위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낙태경험의 질적 구조를 파악하고, 낙태경험이 여성 개인의 삶과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여성의 생애동안 경험한 낙태경험은 어떠한 것이며, 낙태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부부관계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에서 부부의 친밀감 형성은 신체적 성관계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은 부부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한 생활 사건들로 인해 변화하게 된다(김진숙, 2010). 이 중 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구성원이 더 늘어나는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할 수 있겠다. 자녀의 출산이 부부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낙태경험은 가족관계의 비밀상적이고 부정적인 주요생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낙태경험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낙태 후 증후군을 초래하는 신체적·심리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 김시연(2010)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과의 연구에서 아내의 결혼만족은 남편의 지지에 영향을 받고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남편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부모 됨은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 그러나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사람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 부모가 지닌 부모관이나 자녀관은 부모로서의 역할 및 자질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뿐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사회에서 바라는 역할 등으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규범과 가치, 가족제도 및 교육제도와 문화 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나 기능, 부모-자녀관계가 달라지고 있으며, 부모 및 자녀에 대한 개인의 지각 또한 변화되고 있다(이병래·염은나, 2008).

최근 출산기피의 요인과 관련된 연구(마미정, 2007; 우남희 등, 2009; 유경·이주일, 2010; 이경숙 등, 2009; 이미란, 2010; 조혜자·방희정, 2005)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생애주기 안에서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만혼으로 인한 첫째아 출생의 지연과 더불어 재생산연령대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여성출산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의 부모-자녀관계를 미루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부모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녀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9년 7월 모자보건법의 시행체척변경과 2010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태아가 유전적 질환을 지니고 있는자'를 임신중절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임신중절의 사유가 '배아병리적 적응 요건'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은 부모의 자녀 수용에 있어 부모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태아에 대한 유전자 진단은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태아가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지 않다면 출생이후 생존은 가능하지만 원치 않는 유전적 질환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하는 임신중절이 이 규정을 통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김나경, 2010). 이는 결국 태아의 선천성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은 어렵게 되며 의사의 전문학적 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명시하여, 의사에 판단에 따라 부모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낙태문제를 생명과 선택의 문제로 양분되었던 것을 생명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되 부모의 생명존중을 전제로 한 성찰적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최초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맥락에서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생애동안 경험한 낙태경험은 어떠한 것이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여성의 낙태경험에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the lived experience)에 대한 이해를 얻으며,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질적인 접근이 적합하다(Padgett, 1998). 낙태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한 '살아 있는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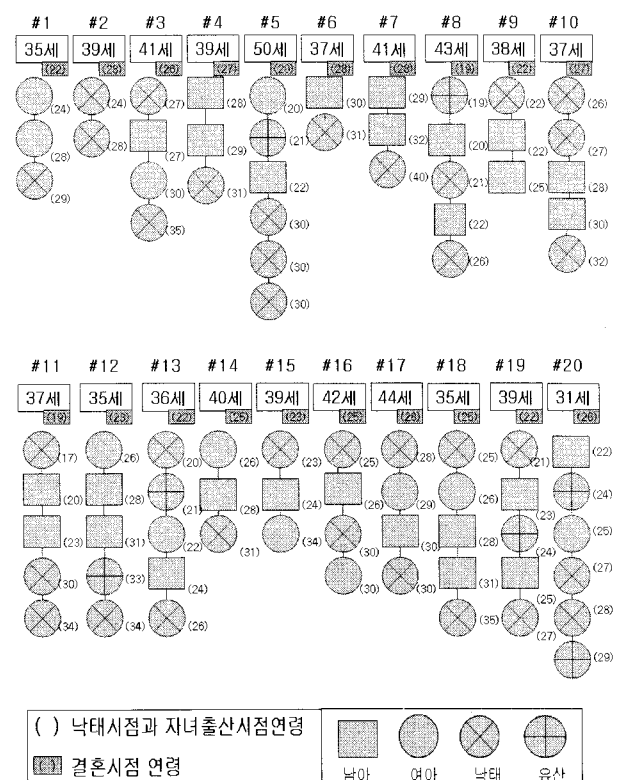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한다.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상을 확인하고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로 구성된다(Creswell, 2007). 심리학자인 Giorgi는 Husserl의 현상학의 원칙에 따라 현상학을 인도하는 주제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태 자체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현상을 통해 살아 가고 있는 일상생활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세계에서의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현상학의 목적은 체험을 변형시켜 그 본질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다(신경림, 2008).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적절성을 위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가장 적합한 준거적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통계청 출산력 산출시 15세에서 44세 여성을 표본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태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20명으로 혼인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기혼 17명, 이혼 후 독신 3명으로 미혼인 연구 참여자는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1세에서 44세까지 여성과 50세 참여자가 한명이다. 본 연구가 낙태를 경험한 회상연구로 50세 참여자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참여자의 경험과 함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보여주어 자료에 포함하였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원졸 까지, 소득은 중하에서 중상까지, 직업도 주부 10명에서 자영업 및 회사원 10명까지 다양하였다. 결혼유지기간은 50세 참여자의 30년을 제외한 참여자의 결혼유지기간은 5년~18년까지 평균 12.5년이었으며 현재 이혼 후 독신인 참여자가 3명이었다. 참여자의 자녀수는 무자녀



<그림 1> 연구 참여자들의 임신력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코드	연령 (만)	학력	가계의 월소득	직업	자녀	결혼연령	낙태연령		현재피임 방법	종교
							혼전	혼후		
#1	35세	초대졸	500만	회사원	초5여, 7세여	22세	·	29세	루프4년 자연주기	개신교
#2	39세	고졸	300만	주부	중2남, 초5여	28세	27세	35세	루프7년후 정관수술	없음
#3	41세	초대졸	300만	주부	없음	26세	24세	28세	자연주기	개신교
#4	39세	초대졸	2000만	주부	초5남, 초4남	27세	·	31세	루프7년	개신교
#5	50세	대졸	700만	주부	30세여, 28세남	20세	·	30세 3회	낙태 후 정관수술	개신교
#6	37세	고졸	130만	주부	초1남	30세	·	31세	루프5년	개신교
#7	41세	대졸	300만	주부(전 영어강사)	초6남, 초1남	28세	·	40세	낙태 후 정관수술	없음
#8	43세	대학원재	300만	보육시설장	23세남, 21세남	19세 29세 이혼	·	21세 26세	낙태 후 정관수술	없음
#9	38세	대학원졸	180만	컴퓨터 복지사	고1남, 중2남	22세 36세 이혼	22세	·	난관수술	천주교
#10	37세	대졸	350만	주부	초3여, 초1남	27세	26세 27세	32세	낙태 후 정관수술	없음
#11	37세	대재	660만	자영업	고2남, 중2여	19세	17세	30세	콘돔	개신교
#12	34세	고졸	150만	피부관리사	초3여, 초1남, 5세남	23세 39세 이혼	·	34세	루프11년 (3번 교체)	개신교
#13	36세	고졸	430만	보육교사	중2여, 초6남	22세	20세 21세	26세	낙태 후 루프4년후 정관수술	없음
#14	40세	고졸	450만	보육교사	중2여, 초6남	25세	·	31세	낙태 후 루프13년	개신교
#15	39세	고졸	250만	주부	중3남, 초5여	23세	23세	·	루프10년후 피임약	없음
#16	42세	대졸	500만	보육교사	고1남, 초6여	25세	25세	30세	루프8년, 자궁수술 후 루프5년	없음
#17	44세	대졸	400만	회사원	중3여, 중2남	28세	28세	30세	자연주기	없음
#18	35세	고졸	320만	주부, 캠프요원	초3여, 초1남, 5세남	25세	25세	35세	난관수술 자연주기	불교
#19	39세	대졸	600만	회사원	고1남, 중3남	22세	21세	27세 2회	낙태 후 정관수술	없음
#20	31세	고졸	300만	주부	초2남, 6세여	26세	·	27세 28세	낙태 후 루프1년반 피임약1년	개신교

1명과 세 자녀가 2명 있었으며, 참여자 17명의 자녀수는 2명이다.

낙태경험은 1번이 9명, 2번이 8명, 3번이 4명으로 참여자의 절반이상인 12명이 두 번 이상의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혼전에 처음 낙태를 경험한 참여자의 나이는 19세에서 28세이며, 10명이 20대 초중반에 낙태를 경험하였다. 결혼 후에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8명으로 혼전 낙태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낙태를 반복한 경우는 9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임신력은

<그림 1>과 같다.

낙태 후 현재는 여러 가지 피임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월경주기로 자연피임을 하는 참여자가 4명, 루프 부작용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참여자가 2명, 난관수술과 콘돔사용 각각 한명씩, 그리고 남편의 정관수술 6명, 본인의 루프수술은 6명이었다. 종교는 개신교 9명과 천주교, 불교 각각 한명씩을 제외하고는 9명은 무교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질적 연구에서 면접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세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잘 밝힐 수 있는 방법인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연구 참여자의 자택이나 사무실,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면접 전에 면접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전화연결 과정에서도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느낌이나 태도를 메모하였고, 면접 직후에 연구자로서 전체적인 느낌이나 인상 깊은 내용을 위주로 메모한 후 분석과정에서 참고하였다. 면접질문은 자녀 임신 경험과 낙태 경험, 낙태 후 경험과 자녀 및 배우자 혹은 주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낙태와 관련하여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나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낙태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단계로 분석하였다. 이는 곧 참여자의 체험의 구조적·주제적 측면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신경림 등, 2008).

분석 작업의 구성요소로 Morse(1994)는 이해(comprehension), 합성(synthesizing), 이론화(the-oring), 및 재 맥락화(recontextualizing)을 제시하는데, 연구 전 과정에서 이 작업은 순환적으로 계속된다. 이해는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작업으로 연구자 자신의 경험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자의 낙태경험을 통해 낙태경험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낙태 치유모임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해볼 수 있었다. 그 다음 연구 참여자를 통한 경험적 진술을 얻기 위해 낙태경험에 대하여 면접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 기술된 자료를 초점 분석하고 어원을 추적하며, 경험을 이해하는데 추가할 구와 절을 찾아내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헌을 통해 얻은 경험적 기술 자료는 면접 자료를 통해 얻은 이해를 보충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합성은 주제를 분석해 내는 과정으로 기본적인 자료합성 작업으로 일차적으로 특정 경험의 공통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완성된다. 낙태경험에 대한 개인적 경험들의 합성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가 포화 되었을 때, 즉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료들의 범주가 각 개인의 낙태경험은 성관계, 임신, 낙태 그리고 철저한 피임으로 연결되어지는

정서적 단절의 구조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이것은 낙태경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론화는 글쓰기를 통해 현상학적 반성을 다듬는 작업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추상의 수준을 높여주며, 특수한 측면에서 보편적 측면으로 진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더욱 민감하게 해준다. 각 개인의 낙태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추출된 공통된 경험으로 정서적 단절이라는 핵심주제(essence)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반성적 고찰과 다듬기 과정에서 낙태경험에 대한 이론화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재 맥락화는 경험적 주제를 개발하고, 현상학을 살아있는 몸, 관계, 현 시간, 현공간과 재 맥락화로부터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론이 연구 결과가 적용될 다른 상황과 다른 집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낙태경험과 연결되어 분석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여성의 낙태경험과 관련하여 여성의 몸의 체험과, 생명의 의미, 성관계, 자녀 및 부부관계 등의 맥락들을 연결 지어 고찰해볼 수 있었다.

분석과정은 원 자료에서 전체에 대한 느낌(sense)을 얻기 위해 연구 참여자 각각의 전사본을 읽으며 여러 번 지속적으로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낙태경험의 전체적인 느낌은 성관계의 결과로 인한 임신을 하여 낙태를 경험하게 된 여성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은 낙태 이후와 현재까지도 맥락이 이어졌다. 일단 전체에 대한 감을 얻어 처음부분으로 돌아가서 연구 참여자의 낙태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단위'를 구분해 내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전사본을 읽으면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미단위는 11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그다음은 '의미단위'의 윤곽을 잡고, 의미단위 전부를 조사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심리학적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표현하여 마지막으로, 변형된 의미단위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여 핵심주제(essence)가 도출되었다.

5. 연구의 타당화 검증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적 배경, 연구 목적 등에서 양적연구와 구별되기 때문에 연구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적 연구와는 구별된다.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rigor)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 정도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이 신뢰성은 학문적 엄격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질적 연구 전반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Lincoln과 Guba(1985)가 연구결과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추구하고자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 감사가능성(audi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은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연구자는 가능한 분명하게 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정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결과가 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도출 후 자료에서 추출한 개념이 그들의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등을 물어 보면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과정을 거쳤다.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은 연구과정의 상세한 기술을 통해, 연구결과가 공유된 특성들 때문에 옮겨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절차의 재현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절차를 성실히 작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이 가능성을 타당화하도록 노력하였다. 감사가능성(audibility)은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동일한 참여자들이 상이한 맥락에 있을 경우나 상이한 참여자들이 유사한 맥락에 있는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결과들 간에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원을 심층면접과 현장일지 및 반성일지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유사한 맥락 또는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참여자의 진술이나 기록내용을 비교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자가 사용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가면서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 외에 질적 연구방법 지도 교수님과 아동복지 전공 박사과정 동료 1인, 석사과정 동료 1인과 함께 본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감사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

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동료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과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자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해 면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연구 참여와 녹음에 동의한 참여자를 면접 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코드 처리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여성의 낙태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무지, 피임의 실패, 육아에 대한 걱정, 자아성취에 대한 좌절,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 병원에서의 낙태경험, 낙태 후 부정적 정서경험, 피임을 위한 노력, 배우자와의 관계 회피, 자녀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타인에 대한 이중 잣대 11개의 의미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계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 낙태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의 주제로 조직하였다. 이로부터 핵심주제(essence)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부터 낙태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는 임신부터 낙태 후에 이르는 낙태경험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정서로 정서적 단절이 도출되었다. 낙태경험의 질적 구조는 <표 2>와 같다.

1. 통계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초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 번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피임방법이 임신을 가능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예측하지 못한 임신사실을 확인했을 때 임신

<표 2> 낙태경험의 질적 구조

의미범주	주 제	핵심주제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무지 피임의 실패	통계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육아에 대한 걱정 자아성취에 대한 좌절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	
병원에서 낙태경험 낙태 후 부정적 정서경험 피임을 위한 노력 배우자와의 관계 회피 자녀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타인에 대한 이중 잣대	낙태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	정서적 단절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하였다. 임신가능성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통제하였다고 생각한 것이 현실적으로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1)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무지

연구 참여자들은 성관계를 하면서 임신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주기로 배란일을 맞추어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성관계로 인한 결과로 임신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질외사정이나 모유수유로 임신은 이루어 질 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임신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들어맞지가 않아. 나는 생리주기가 계속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맞더라구, 그게 안 들어맞는 경우가 더 많아.(#15)

근데 잠을 잤었는데, 그게 참 철저했어. 피임을 어떤 외부 약이나 뭐 콘돔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콘돔을 한 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불편했었어요. 콘돔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둘 다 그 암묵적으로 임신을 하면 안된다가 너무 강했어가지구 음~ 그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절대로 절대로 그걸 사정을 안애다 안 시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었어 둘다.(#2)

셋째는 진짜 생각도 안했어요. 마음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둘째를 늦게까지 모유수유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때까지 모유수유를 하기만 하면 아... 자연피임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 섰더라구요.(#14)

연구 참여자들은 성관계를 하고 있지만 임신사실은 예견하지 못했던 사실임에 황당함 느낌을 가졌다. 임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여러 번 확인을 하고서야 확인된 임신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였다.

그 (성관계) 경험이 딱 한번이었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약국 가서 검사하는 소변검사로 확인하는 거를 샀죠. 확인하니까 임신으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그건 가부다.(#9)

임신사실은 제가 그냥 그때는 약국에 가면은 테스트기 사다가 그때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가니까 임신이라 그래가지고, 확인을 몇 번했어요. 네다섯 번 했나? 계속 사가지고 한 거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구,

이게 진짜가 해가지구.(#13)

임신 사실은 또한 혼전성관계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이 되어 임신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였다. 보이지도 않는 생명을 죽였다는 생각을 할 수 없기에 생명이 아니라고 합리화하였다고 하였다.

요즘엔 혼수라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난 너무 그런 게 싫었어. 애를 갖고, 성관계를 혼전에 했다는 게 공개되는 거잖아 그런 게 싫었어. 한 거에 대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증명되는 게 싫은 거지, 내 스스로 몰래몰래 하는 건 알지만 공개적으로 오픈 시키는 게 싫었던 거지. 들리는 상식에 의해서는 진짜 요만큼 생길까 말까다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거다 논란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했던 거 같아. 왜냐면 내가 합리화인지 모르겠지만, 생기지도 않은 요만한 건데, 그게 어떻게 생명을 죽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합리화를 많이 한 것 같아.(#3)

2) 피임의 실패

한 번의 낙태이후 피임을 철저히 하면서도 또 다시 반복되는 임신사실에 더욱 당황스럽기만 하였다. 피임을 못한 책임으로 임신이 되어 임신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더욱 참담한 기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참여자들은 느끼며 낙태를 결정하였다.

그거는(피임) 안하고 이제 조금 더 조심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빨리 또 다시 반복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랬는데,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일 년 안에 세 번이 다 된 거 같아요.(#5)

나는 그게 미스터리가 내가 생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지난상태였어요. 그니까 가임기간은 아니었걸랑, 내 상식으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작일로부터 일주일정도 일주일도 채 안지난 거 같아. 그랬으니까 분명히 가임기간은 아니었던 거야. 그니까 28살에 했던 두 번째 임신도 그게 나에게서는 너무 헛갈렸던 문제였어.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자가 오래 버티는 거야.(#2)

아! 이걸 왜 못했어? 피임 애길 하더라고... 내가 무슨 선수야?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게 그걸 왜 못했느냐 라고 하더라고, 당황했어. 하기는 했겠는데... 피임 기간에 맞는 지식이 그 계산을 해서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해도 그다 뭐... 그럼 내가 조심을 해야지 라는 그런 건 남자가 질외사 정인데 그것도 그게 제대로 됐으면 임신이 안됐겠지.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그 생각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무섭다. 두렵고, 두렵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지.(#15)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경험에 대하여 객관적인 나이에 상관 없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너무 어리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 번의 실수로 이루어진 임신이 낙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는 행동으로 느껴졌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낙태를 결정하였다.

그냥 한 번의 실수였던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임신이 돼서 놀랐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생각도 가져 본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낙태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상대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좋아서 만나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엄마가 된다는 마음의 준비도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혼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언도 좀 많이 들었고 그 아이를 난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것 같아요. 나이도 어렸고 사실... 스물두 살 때니까 그 친구는 저랑 한 살 차이 스물 세 살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고 근데 뭐 아이를 어떻게 해라마라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9)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 후의 자신의 몸에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낙태결정을 하였다고 하였다. 단지 혼전 임신에 대한 창피함으로 인해 임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낙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하였고, 오히려 몸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결혼 전에 임신이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철이 없는 거지. 사실 뭐 애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도 되는 건데, 일단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교제하다가 나는 그때 내가 날짜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임신이 원래 잘돼. 그래가지고 조금 저기 피임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또 의식을 못했고, 우리 신랑은 그냥 뭐 결혼 할 꺼니까 임신 해도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피임을 안했어, 남편이 그래가지고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임신이 됐구나. 어떤 그런 것보다 너무 짜증나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절을 하면 뭐 내 몸이 어떻게 되고,

뭐 임신한 거랑 출산한 거랑 똑같다. 수술하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너무 몰라가지고, 당장 이렇게 지워야겠다. 이 생각만 먼저 들지 앞으로 어떤 내가 지우면 내 몸이 편하겠구나. 이게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10)

2.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상황, 육아의 어려움, 배우자 상황, 혼인 유무, 현재 자녀의 미래를 고려한 선택 등 자신이 지각한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낙태의 시기를 빨리 결정하며, 자신의 삶에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낙태시술의 96%가 임신 12주 미만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자녀출산의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걱정, 뜻하지 못한 자녀의 죽음 등으로 자녀와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이후 출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1) 육아에 대한 걱정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또 다른 자녀출산의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결혼과 동시에 자녀출산과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의 임신은 현재 자녀에게도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임신했을 때 축복처럼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별루, 친정에서도 손자들이 많으니까 첫손자면 안 그랬을 텐데 첫손자도 아니고 신랑도 그다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결혼하고 생긴 애기니까... 갖자했더니 그냥 생기고 나는 산후 조리할 때도 조리원갈 형편도 안 되고 그때 엄마도 직장 다니셔서 잠깐 엄마 와서 봐주고 낮에 혼자 있었고, 큰애한테 스트레스를 부렸나봐요. 큰애가 좀 짜증을 많이 내요. 애 가졌을 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결혼했을 때 신랑이랑 나랑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거예요 나는 그만 두고 신랑은 다니는데 부도난 회사니까 월급은 잘 안 나오고 첫째 낳고 나서까지는 그 힘든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 힘든 기억이... 신혼에는 힘든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기억보다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어려운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게 애한테 간 것 같아요. 신랑도 25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냥 내 앤 가부다 하고 둘 다 잘못 키웠죠.(#1)

나는 아들 둘을 키워서 그러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어

서 너무 힘들다 못해 힘들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빠 가지고, 그때는 힘들다는 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는지 계절이 지나가는지 못 느끼는 상태로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우유병도 떼고, 귀저귀도 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새삼 느꼈죠, 한 4-5살 때쯤... 두 아이가 또 더군다나 남자아이고, 그리고 연년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도 버거운데 첫 경험에, 하나도 버거운데 갑자기 같이 또 들어서버리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낳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10)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뜻하지 않은 유산이나 태어난 자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과거 자녀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현실을 생각하고 미래의 교육의 비용 등을 고려한 미래 육아에 대한 불안으로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큰 애 낳고 둘째 낳기 전에 애를 임신했는데 8개월 때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낳아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고, 나는 집에 왔지. 그때 애기가 인큐베이터에서 한 보름정도 있다가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 년 있다가 둘째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어도 아마 미련이 없어진 거 같아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아, 그 (낙태한)아이는 생각안하고 그냥 있는 애나 잘 키우자가 강했죠.(#8)

그때는 아빠 회사 일을 돕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내가 빠질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고심 끝에 그냥... 그때는 왜 아기를 지우고 저거 하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안하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을 했던 거 같아요.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뭐 그런 거 소중함이라던가. 이런 건 둘째 치고, 당장 현실을 봤을 때, 양육하기 힘들다. 라는 거 뭐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봤었지. 어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 같은데.(#4)

태아가 기형아 일 수도 있다는 엄마의 생각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장애아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미래 육아에 대해 자신 없게 느껴졌고, 현재의 자녀를 고려하여 미래 장애아에 대한 불안이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후 장애에 대한 불안으로 낙태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우리 둘째처럼 검사 중에 기형이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낙태 못할 거 같아요. 지금도 애 밝은 모습 보면 되게 좋고 내가 해주는 만큼 다 변화되고 구지 항상 과거라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다 도와주고 그러면 개선되고 다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부모로서 도리니까, 하는 것뿐이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갖고 싶었고 원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너무 독한 거를 먹었고 그랬는데 솔직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꼭 스트레스가 꼭 될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태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갈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아이도 그걸 느끼잖아요.(#12)

우선 애들이 없었으면 솔직한 말로 애들이 없었으면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위에 애들 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을 했겠죠. 아마... 그리고 그대 힘들고 했었으니까. 그 애 낙태는 (다이어트)약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 애가 아프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애들도 다 힘들게 되니까, 감당이 안돼요.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봤거든요. 작은애 다니는 학교가 통합학교인데 장애아도 봐왔기 때문에, 봤는데 그 엄마를 보셔는요 나는 그렇게 못할 거 같아요. 애 있으면 진짜 꿈쩍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하는 상황이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그 애 하나기 때문에 쫓아 다니는데, 만일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두 애는 완전 저기하고 붙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애를 생각하면 개를 낳아야하는데 내가 그 애를 잘 키운다는 자신은 못 가지니까...(#16)

3) 자아성취에 대한 좌절

연구 참여자들은 일찍 아이를 가져서 가질 수 없었던 나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육아를 마치고 새로 시작한 공부를 위해 육아라는 희생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낙태 결정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후회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도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때는 솔직히 저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살기도 빠듯한데 셋까지 키워야하니까 또 일찍 애기를 낳았으니까 그때는 내 생활이 갖고 싶었어요. 애기 낳고 직장 다니면서 처음 내 생활을 가지면서 내가 나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 같아요. 근데 애가 생김으로써 또 나를 포기해야하는 거잖아요. 엄마로서... 그게 나한테 싫었던 부분이었고 신랑만이 아니라 나도 싫었던 거 같아요. 좀 무책임

임했죠. 너무 애기를 일찍 낳아서 책임감이 좀 덜 했던 거 같아요... 서른이 넘어가면서 그때 직장 다니고 그런 걸 내가 찾아가고 있는 시기에 애기가 생긴다면 다시 원점이 돼서 나는 또 애기 엄마가 돼서 집에서 애들보고, 나는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맨날 쓴겨 그런 거 보러 다니고 옷도 못 사 입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구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다시와도 똑같이 할 거예요.(#1)

이년 전이면 작은 애가 여덟 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열 살이니까. 그러니까 셋째를 낳아서 기르기는 이제 도저히 시간상으로 너무 아닌 거야. 내가 공부하는 과정도, 막 달려가는 과정인데 다 멈춰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낙태 결정을 했죠.(#7)

4) 배우자와 관계를 고려

연구 참여자들은 미혼부터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남편의 일을 돕는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출산으로 잠시 육아를 담당하다가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건강에 등을 고려하여 낙태를 결정하였다.

우리가 남편이 외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낳고 싶었는데, 우리가 군인 아파트에 살다보니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라 정책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셋 되면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셋 되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 그래가지고 계획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부흥하고 살고 있었지. 거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낳는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낳을 이유가 없는 거야. 딸도 있겠다. 아들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딸만 있으면 아들 낳겠다고 하고 뭐 아들만 있으면 딸을 낳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될 만한 꺼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제재가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낙태를 하게 됐고.(#5)

첫 번째 낙태에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두 번째 낙태를 하면서는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긴 했지만 낙태한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하였다.

제가 낙태 경험이 두 번 정도 되는데 한번은 신랑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낙태를 했고.. 그때는 이제 미안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좋았긴 했지만 짐작은 별로 안했는데,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낙태를 한 게... 신랑이 일은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큰 애를 스물셋에 낳고 작은애를 스물다섯에 낳았는데 그때도 자리가 많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신랑이 이제 중간에 사연이 많이 있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신랑이 모아왔던 돈도 많이 까먹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그걸 형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면서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신랑도 돈이 없어가지고 셋째애도 그냥 그렇게... 둘째하고 거의 연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셋째를 뎀 거 같아요. 셋째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미안하죠.(#4)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배우자의 낙태권유에 배우자와의 상황과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낙태결정을 하였다.

애기 아빠가 큰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빠가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던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본인 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죽으면... 자녀에 대한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몸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도 안돼서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몸까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질 않더라고요. 애에 대해서... 임신 사실을 앓과 동시에 입덧을 계속하는데 근데 애기 아빠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야. 애기 갖는 거를. 그래서 지우라고 하더라고.(#6)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반대로 인해 설득도 해보고 혼자 감당해보려고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낙태하기로 선택하게 되었다.

애기 아빠가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애가 딸이면 안 지워도 되냐고 그랬지. 나는 그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하나의 심정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아직은 모른다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딸이면 낳수가 있는데 아들이면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남편입장은 알지만 나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애기 아빠가 네가 애기를 낳으면 이혼할 생각해라 딱 그러더라고 못 낳는다고. 낳으면 나

랑 그냥 살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내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산을 했죠. 눈물을 머금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했던 거야.(#6)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결혼생활 지속의 어렵게 하였고, 결혼생활동안 지속되는 남편과의 오랜 갈등은 종교의 힘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이 알면 부모나 형제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컸다. 타인의 낙인과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현재의 임신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느껴졌다.

첫애를 낳기 전부터 결혼을 해서부터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삶을 지속하다보니깐. 어쨌든 남편하고 성관계를 별로 안하고 살았었어. 그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지금 둘째 낳기 전에 임신이 된 거야 큰애가 어렸으니까 돌이 조금 안 됐을 때거든 그래서 애를 했어요. 낙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둘째애가 생겼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정말 슬퍼했어. 나는... 그 남자하고의 삶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임신이 된 것을 어떻게 뒤늦게 알아가지고 정말 많이 슬펐는데 그때는 내가 이미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낙태를 할 수 없었어. 그때는 아마 종교가 없었더라면 애도 지워버렸을거야. 그래서 이 애를 출산했고, 그리고 나서 삶을 지속하다가 또 임신이 된 거야... 그 사람이랑 같이 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안 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수술을 했지. 아무한테도 얘기안하고 혼자.(#8)

뭐 잘 한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혼모로 산다? 그런 자심감도 있지 않았고, 상대자와 결혼을 한다? 그런 믿음이나 신뢰감도 없었고 그 남자한테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그런 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제서 만약에 임신을 해서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겠죠. 그때 당시 내 상황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후회를 하고 말고 할 뉘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9)

나는 전혀 망설임은 없었고, 신랑은 뭐 낳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또 너무 실망하실 것도 막 생각이

들고, 내가 뭐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할 거긴 하지만, 그 당시 까지만 해도 그. 이렇게 뭐 임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개중에 있었겠지만, 근데 내가 일단 생각할 때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 그리고 이상해 보였어. 그런 사람들이.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싫어서 싹 다 그냥 흔적을 없애고 싶은 거 있잖아. 너무 싫은 거, 앞의 미래고 뒤고 간에.(#10)

3. 낙태결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각한 현실의 불안과 배우자와의 상황과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 낙태 이후는 더욱 예측하지 못했던 일로 경험하였다. 불안한 현실을 도전 또는 회피하고자 했던 결정은 신체적, 심리 정서적으로 소외되어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경험이 되었다. 자신의 몸에서 느껴진 생명에 대한 느낌을 감추려하지만 무엇인가 모를 상실감을 느꼈다. 또한 낙태과정에서의 수치심과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와 무가치감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실감과 함께 우울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1) 병원에서 낙태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병원에서의 낙태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는 상태를 경험하였다. 또한 표현하지 못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신의 마음상태를 표현할 곳이 없어 정서적으로 침체된 경험을 하였다.

나 스스로도 몸이 되게 다른 사람은 그 낙태했다고 해서 몸이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 막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구토를 많이 하고 그런 몸에 반응인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못하니까 어느 책에 마음이 울지 않으면 몸이 운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마음이 울고 싶은 걸 어디다 풀지도 못하고 울 수가 없으니까 몸이 울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일주일 동안 심하게 아프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던 거 같아.(#4)

되게 놀랍다, 그 기억들이... 낙태를 했다는 그 사실보다, 낙태를 하는 그 상황보다 그 때 나의 상황? 그런 게 막... 수술대 위에 누워서 그런 나의 비참함, 옛날 일인데도 다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네?(#19)

낙태시술 후 무엇인가 몸속에서 없어지는 허망한 느낌이 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명에 대한 느낌을 막연하게 느끼면

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낙태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뭐 수술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카드는 안 됩니다. 현찰입니다.(호호호) 이렇게 얘기하고, 카드는 안 되고 현찰로 하라고 그리고 참 허무했던 거.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니까 입덧이 싹 없어졌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하다. 입덧이 참 심했거든요. 그 잠깐 순간인데도 입덧이 심하고 그랬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게 싹 없어졌다는 느낌이 와 진짜 이제 없구나. 아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랬죠.(#6)

애 하나를 지운다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애 하나를 지운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생긴 애 필요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낙태하는데 이 기분이 아니고, 죄책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살인한다는 느낌 딱 그거였거든요. 어쨌건 생긴 생명이고.(#7)

2) 낙태 후 부정적 정서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낙태 후에도 낙태로 인한 경험은 온전히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낙태 후 혼자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자기 자신과 현재 자녀를 위해 생활을 바쁘게 이어갔다. 낙태결정을 하고 혼자 낙태를 치루며 이후의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은 온전히 자신의 몫임을 받아들이지만, 배우자와 공감되지 못하는 부분에 마음을 억누른 채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내 스스로 마음 추스리는 건 나의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내 스스로 이제 일주일 동안 실컷 아플 만큼 아프다가 나는 특히 또 가족들한테 내가 이래서 힘들고 아프고 그런 얘기를 통 안하거든, 원래 보통, 그러니까 더군다나 마음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몸으로 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심하게 아프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로 마음이 또 해소가 되었던 거 같기도 하고 또 그 아이는 그 아이지만 내가 또 키워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오랜 기간 내가 친정에 있으면서 아이들 건사를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또 두 차례 세 차례 또 피해가 간 것 같아서, 마음을 고치게 되고. 그런 계기도 되고.(#4)

혼자 그냥 미역국 사서 먹었던 거. 별루 위로도 안 해주고 별루 시큰둥하더라구요. 애 아빠가. 나는 그래도 얘기 유산(낙태)을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알아서 시켜먹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서운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그 내 책임인거 마냥 그렇게 뭐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못 넣게 한 거 복합에. 진짜 산후 조리도 이것도 얘기 넣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면 내가 얘기 하루 봐줬잖아 이런 투로 표현 했을 때, 애기 아빠가 되게 가부장 적인 게 많거든요. 고지식한 면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6)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자 낙태를 결정했지만 낙태결정과정보다 낙태 후에 느껴진 죄책감으로 더욱 힘든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결정하기까지는 힘들었죠. 물론 힘들었고, 하기까지 과정보다는 하고 나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누가 알게 될까봐 특히 가족이 알까봐 수치스런 게 가장 컸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두 명 정도 친한 친구만 얘길 했었고 그랬는데, 낙태를 하고 나서 죄책감이나 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서 거의 몇 개월 정확히 그게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아기 울음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후가 훨씬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9)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 후 상실감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있는 자녀를 보며 위안을 삼고 더욱 신경을 쓰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였다. 자신의 애처로운 마음을 아이로부터 위로 받기위해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 한편 배우자와의 관계는 멀어짐을 느꼈다.

글쎄 그때는 더 아이한테 더 많이 쏟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밖에 없으니.. 워낙 아이를 예뻐했지만, 애밖에 없다는 그 생각에, 더 이상 내 아이는 없구나. 이런 생각에, 애에 대한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힘들어도 개를 보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삼고 애를 보면서... 아이의 재롱을 띠든가 뭐 그런 거에 마음이 많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 같아요. 애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돌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애 아빠가 시간을 같이 안보내주니까, 자기 몸이 아프니까 못 어울려주고 어찌고 하다보니까 애한테 같이 이제 놀러도 가고 사람들 하고 모여서 동물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엄마 어렸을 때 못한 거 그런 거를 문화생활도 많이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6)

낙태과정에서 느껴진 불쾌감들을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내며,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묵은 감정으로 분노로 남아있었다.

이 체험은 아마 또 저만의 체험일거라 다른 사람은

또 저처럼 그런 비참한 기분 느끼면서 병원까지 욱하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물건 취급 받듯이 그런 기분 나쁜 취급이었으면... 제일 편안하고 위로받아야 할 시점에서 말하자면 그게 오래갔어요. 그 기분...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서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것처럼, 어우 오늘 일진 사나워 어우 기분 나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물 같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거 같은 그런 기분은 그게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뭐 살다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당사자한테는 그 불쾌감이 너무 오래 가는 거야. 진짜 오래가 더라고요.(#7)

낙태경험과정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가족이나 교회 사람이나 주변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행동하였다. 결국 혼자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에 이후의 경험도 혼자만의 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른 결혼생활로 인한 친구들의 단절과 죄책감으로 인한 종교생활과의 단절은 더욱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 한 거는 정말 지금 처음인거죠.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변사람 아무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병원 혼자 스스로 찾아가서 수술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집에 와서 일상생활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했었지...애를 더 낳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혼자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병원가고 다 혼자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마음을 나눌만한 그런 곳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다 종교인인데 종교인한테 그런 일을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다보니까 세상 친구가 학교친구가 다 단절된 상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그런 데가 없었어요. 혼자 생각해서 판단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종교생활을 못했어요.(#8)

3) 피임을 위한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다시하고 싶지 않은 낙태를 경험하고 제 임신으로 인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피임방법을 써보지만 몸에 부작용으로 인해 피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낙태하고 얼마 있다가 물어봤죠, 루프를 꺼야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하나. 왜냐하면 루프는 그거를 빼면 아기를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에 위안이 되니까. 우리 남편은 안 한다 그러고 또 그런 일이 행기면 또

내 몸만 뒤흔어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루프를 끼게 된 거지. 이제 그걸 끼고 나면서부터는 생리양도 엄청 많아지고 냉이 많이 생겼어요. 그전엔 냉이 없었는데 루프로 인해서 생기는 게 냉이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당장 빼버리고 싶죠.(#6)

요새는 피임약을 먹는데, 피임약도 그다지, 그다지가 아니라 피곤하지. 피곤하고 성관계를 하면 예전에는 몰랐던. 아파, 아프고, 위궤양? 위에 부담되고 한번은 안 좋은 걸 많이 느껴서.(#15)

낙태에 대한 남편의 공감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신의 불안과 반복되는 임신으로 낙태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고 최초 낙태 후 대처방법으로 강구한 피임방법 등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피임방법을 모색하였다. 낙태 후 5년마다 갈아야하는 루프 시술, 난관을 묶는 수술, 피임약 등의 부작용 경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자연주기로 최종적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애기 아빠가 안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웃긴 게 이게 상식적으로 오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하는 상황인데 그럼 남자는 한번 가서 하면 되잖아. 한번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휴...허허허 내가 포기하고 살잖아요.(#6)

젠 김에 바로 묵었죠. 왜냐면 22살에 낙태하고 24살에 큰애 낳았거든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모든 걸 잊고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한구석에 나의 무의식에 그게 있을 것 아녜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하기에 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두려웠어요.(#9)

권유를 했어 신랑한테 수술을 해라 남자가 하는 건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수술만 간단하게 하고 오면 되단다. 근데 남자들의 속설 때문에 그런 건지 안 들어 주더라고 그런 걸 어떻게 다시 루프를 켜는데 안 맞아 가지고...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맨 처음에 루프를 써봤으니까 그걸 해봤지. 근데 너무 배가 아프고 자꾸 피가 보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빼고 약을 먹어야겠다 해서 여태껏 먹고 있지. 근데 피곤해 약 먹으면, 그게 저 약 때문에 그런 건지 몸이 떨려서 하기 싫은 건지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약 때문에 의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배우자가 너무 미운 짓을 해서 꼴이 보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건지 아님 내가 늙은 건지. 허허, 알 수가 없네.(#15)

4) 배우자와의 관계회피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 후 임신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배려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원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죄책감으로 우울한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배우자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정서적 신체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큰 애 낳고도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남자하고 섹스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 섹스는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이 결혼하자마자 배우자하고 아주 즐거운 섹스를 하진 않잖아요. 남자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여자들은 되게 힘든...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거든요. 아프고 귀찮고 번거롭고 더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얀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섹스를 남편은 요구를 많이 하고 나는 원치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고... 왜냐면 남편은 모르지만 그전에 아이가 있었고, 남편하고 (성관계)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고 이러니까 임신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남아서 크게 작용했던 거 같아요.(#9)

그냥 미웠죠 뭐 밋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죠. 애기 아빠랑 (성관계)하면서 자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원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상처가 아직 회복이 안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됐는데 막 그렇게 하니깐, 끌려가는 그런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냥 쫓 해주고... 근데 그 마음이 한참 우울증으로 갔어요.(#6)

또한 배우자의 정관수술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져 성관계를 더 자유롭게 하지만, 여전히 배려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서적 회피와 단절은 남아있었다. 낙태경험을 통해 태아에게 애착이 없는 배우자의 방관에 대해 분노의 감정으로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6개월 정도까지 내가 편치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쳐버리진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되게 서운하다고 그런 얘길 했거든요. 난 당신이 병원에 안 따라간 것이 서운한 것도 아니고 또 오면 불려서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올 사람이니까, 단, 내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 굉장히 큰데 당신 안 느껴져? 그런 얘기 하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난 너무 커. 죄지은 느낌이고.. 그리고 얘기 털어버리고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뭐 임신하면 얘기 떼면 되는 거지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겠다 싶어서 그 낙태수술 하고나자마자 우리 남편 그 병원에서 정관수술 시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 갔지 싶어요.(#7)

어쨌든 그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준비가 안됐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던 느낌을 가졌던지 그랬으면 좀 마음이 그 친구하고 잘 됐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뒤늦은 후회도 하는데 그 친구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는 판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관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중에는 내가 힘들어서 그 친구는 그냥 내가 버렸어요. 버렸고, 그리고 열심히 내 생활했던 거 같아요.(#9)

5) 자녀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낙태경험을 통해 과거시절 성지식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현재 자녀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와 소통하는 현실성 있는 성교육을 원했으며 책임 있는 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였다. 언젠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실제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을 토로하였다.

아이들한테는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었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했고, 아이들에게 성지식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성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많이 해주죠, 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해주는 성교육을 다 알고 외우고 있더라고요.(#11)

그냥 나는 일단은 부모가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예전처럼 뭐 뽕뽕 숨기로, 이게 아니고,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근데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요즘은 애들이 얘기하기가 편하잖아. 책을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나는 만약에 남자 친구가 생겨서 여자 친구가 생겨서 관계를 갖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피임을 잘 해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피임은 꼭 해야 된다. 난 나중에 아빠 얘기를 해 줄 거야. 우리 아들한테 피임을 안 해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몇 번을 낙태를 했는데, 나는 이거를 다 얘기 해 줄 거야. 그때마다 엄마는 병원 갈 때 창피했다 근데 니 여자 친구를 그렇게 해봐라. 얼마나 창피하겠니?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

식도 계획을 세워서 낳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그 또 피임을 얘기를 안 해주면, 책임감만 가지고 낙태를 계속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임하는 거를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잘 돼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예방을 좀 해야 될 거 같아. 여자도 마찬가지고.(#10)

또한 성교육과 더불어 부모 됨의 측면에서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결혼과 임신의 책임이 여성과 남성의 공동책임임을 결혼 전후 초기에 필수적으로 하여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책임을 지게끔 서로에게 전가를 해야죠. 여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책임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같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녀 차별을 안두고 서로 간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그런 거를 아이한테 심어줄 수 있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호적에 올리기 전에 부모들한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아이를 사랑하는 교육방법 있잖아 뭣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이라든가 신혼초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서, 이혼확률도 좀 줄이고 아이 낳는 사람한테도 그 교육을 좀 받았으면 열 시간이면 열 시간 이렇게 법적으로 해줬으면 마음이 있어요.(#6)

6) 타인에 대한 이중 잣대

연구 참여자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성관계와 결혼 등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쾌락적인 성관계를 통한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에 대한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낙태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저는 낳으라고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가져서 힘들고 어찌고 하지만 애 낳고 나면 변한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애 낳고 그러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못 견뎌서 낙태를 한 거잖아요 상황을 못 견뎌서. 그러니까는 참을 수 있으면 더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참고서 정말 본인이 원하면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남자들이 생각 없이 주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 뒷일을 생각 안하고

한 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아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갖는 게, 그런 것을 좀 생각 좀 해가면서 관계를 가지면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두고 그것을 안 가져야겠다는 본인들의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하고 노는 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했으면 모를까 함부로 그렇게 내들리지 좀 말았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요.(#6)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이의 양육비가 부담되어 낙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녀를 부모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여 남을 의식한 자녀교육의 병폐로서 한 자녀에게 교육비를 올린하여 다른 자녀는 낙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워낙 얘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감 때문에 얘기를 가져도 낙태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는 게,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돈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내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사람들한테 정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남한테 보여 지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엄마의 욕심이잖아요. 남한테 보여 지는 내 자식 이렇게 키웠어 라고 보여 지는 것 때문에 애한테 막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든다면 남을 의식하는 거보다 정말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러고 해야 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저기하다보니까 그게 낙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6)

또한 결혼유무를 기준으로 낙태에 대한 각각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의 임신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불안과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때문에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혼한 상태에서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자녀를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여 자녀수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있어도 자녀수가 많은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느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솔직히 그래. 난 낳지 말라고 하고 싶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여자는 또 남자가 키우나 뭐? 여자가

낳아서 키워야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결혼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둘은 낳으라고 얘기는 하거든. 근데 자식을 많이 낳아서 거기에다가 다 올인 해서 희생해서는 살지 말라고 하거든. 너무 힘들잖아 경제적인 것도 솔직히 얘기 때야 그냥 키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둘이 있는데 셋째를 낳을까 말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엄마가 지금 뭐 일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사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냥 그만 낳으라고 하고 싶고 집에서 이렇게 뭐 살림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더 낳아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자기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낳지 말라고 하고 싶어.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10)

V. 논의 및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낙태는 사회의 묵시적 합의와 여성 개인의 내재된 신념의 결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관계의 결과를 생각해보지 않음으로 인해 임신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자신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철저하게 피임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였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각한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으며 현재 지각한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결정하지만 결정 이후의 현실은 더욱 냉담하다. 불안정한 자아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임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인해 최선의 선택인 낙태과정은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기기에 모든 일은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피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 내 몸에 임신에 대한 통제로 피임을 하게 되었다. 임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피임의 방어벽은 임신의 두려움을 피해주는 자유를 주지만 정서적 방어벽도 함께 세워져 정서적 회피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부부관계의 배려에 의한 성관계보다는 임신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성관계가 정서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과 과거 낙태경험을 반추하며 자녀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성지식의 무지와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자녀는 그들의 삶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로 인식하였다.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성교육과 토론을 통한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낙태의 원인을 사회적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 때문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부모의 자녀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여 이기심이 반영된 사회적 병폐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유무를 기준으로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혼전성관계에 관한 허용적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편이지만 청소년과 성인이라는 대상에 따른 기준을 달리 생각하였다. 혼전성관계로 인한 임신의 결과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만이 합리화 될 수 있다는 신념은 혼전성관계의 임신가능성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은 낙태로 인해 개인의 신체 및 심리 정서적인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신체적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부부관계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의 영향으로 신체적인 낙태수술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낙태 후 상실감,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 체 가장함, 성적 혹은 관계 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장애를 겪거나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서적 후유증을 앓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낙태 후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우울감, 상실감, 분노감 등을 나타냈으며 이는 부부관계의 소원함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자녀 및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겠다.

특히 낙태 후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어떤 것, 혹은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반사적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초점이 외부로 향해 누군가가 원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였다. 그것이 내가 내안에 최초로 관계를 맺는 부모 자녀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기도 전에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느껴졌었다.

이는 현실 삶의 주체로 자신의 삶에 통제력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이 도전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수용을 위해 지각한 현실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배우자,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즉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은 소외를 경험하고 단절이 반복되는 순환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낙태과정에서 관계의 주체인 배우자,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 가장 가까운 가족도 참여자들의 낙태경험 속에서는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타인들이었다.

셋째,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인 정보수집과 성교육실천은 미흡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출생아의 수와 관계없이

여성의 임신경험은 다수이며, 여성 질환과 피임 등으로 인한 여성의 생식에 대한 건강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선택권과 절대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체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관련 또는 낙태관련 제도나 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성교육이나 육아정책, 또는 자녀교육정책을 통해 낙태를 예방하고자하는 기대만 표현할 뿐 자신과 관련한 성 건강 등의 정보의 획득이나 법 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는 부족하였다. 생애동안 성 정보의 습득은 일간 잡지나 결혼 후 배우자에게서 얻은 정보가 전부이며, 성 정보에 대한 출처를 묻는 질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피임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산부인과 등의 정기적인 진료나 자신의 성 건강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성인에 대한 성교육은 물론 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여성의 낙태경험을 통해 본 낙태가 여성 개인이 생명과 낙태 선택이라는 이분법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부부관계에서 상황과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서적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에 있어 심리적 갈등은 내적갈등이 인지, 행동, 및 정서적 요인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부부관계에서 자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연구(김시연 · 서영석, 2010; 김진숙 · 권석만, 2010)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었다. 이에 여성의 관계적 지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배우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성의 선택권리 또한 부모 됨의 권리로서 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태아의 생명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지지 특히 배우자의 지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여성 스스로가 낙태를 결정하는 선택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고찰해보고 생명의 원천인 부부관계와 가족의 삶에 기반 한 생활정치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자원인 관계를 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역량의 강화(empowering)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낙태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작 낙태를 실제로 경험한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된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과 맞물린 낙태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삶을 그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낙태경험의 정서적 단절은 여성과 그 배우자가 함께 첫 부모 됨의 준비로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할 때 연결되어질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이 충분히 드러나고 그 과정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이해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서 연구 참여자인 여성이 지각한 현실을 바탕으로 낙태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방법이 현상학적 연구의 귀납적 연구결과로 낙태경험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맥락에서 범주화 되어 낙태경험을 생명권과 선택권이라는 양분된 관점에서 경험은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눈덩이 표집으로 특정 직업군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구 참여자가 주부와 보육교사 등으로 모집되어 연구결과의 특성들이 주부와 특정 직업군의 경험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셋째, 참여자들의 연령이 30세에서 50세로 각자 낙태를 경험한 시점이 차이가 있고, 1명의 경우에만 최근의 낙태경험을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인터뷰과정에서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낙태경험의 기본전제가 성관계로 인한 임신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함께 연구한다면 남성의 주관적 경험과 더불어 낙태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의 섭외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30~50세의 기혼여성이었으나, 향후 현재 낙태를 경험한 20대 미혼 여성의 낙태경험을 연구한다면 본 연구와 더불어 낙태경험에 대한 이해가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화(2005).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3)**, 39-59.
- 김나경(2007).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형사법연구*, **19(1)**, 127-165.
- 김시연 · 서영석(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영택(2008). 법과 보건계획에서 여성 건강의 위치. *여성건강*, **9(1)**, 87-101.
- 김진숙 · 권석만(2010).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65-288.
- 권오봉 · 윤석찬(2010).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 책임. *법학연구*, **51(1)**, 503-524.
- 마미정(2007).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숙자(2001).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17(2)**, 69-96.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

배종대(2003). 형법각론. 서울: 홍문사.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2008).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현아(2005). 여성의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1)**, 5-39.

우남희 · 김영심 · 이은경 · 김현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유경 · 이주일(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89-104.

이경숙 · 정석진 · 박진아 · 신의진(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이병래 · 염은나(2008). 어머니와 예비 어머니의 부모관 및 자녀관. *유아교육학논집*, **12(3)**, 175-194.

조혜자 · 방희정(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95-112.

통계청(2010). 2009년 출산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 실태조사.

Bernd Schünemann(1991). 한영수 역(2002). 임신중절, 형사법연구, **17**, 279-299.

황나미(2007). 가임기 여성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27(2)**, 122-141.

Creswell, J. W. (2007). *Second edition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 CA: Sage.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Morse, J. M. (1994). Designing founded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20-235). Thousand Oaks, CA: Sage.

Padgett, D. K. (1998).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 접수일 : 2011년 05월 07일

□ 심사일 : 2011년 06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17일